HEREN

트루 프리미엄 멤버십 매거진 HEREN IS LOVE

February 2014

Be My Valent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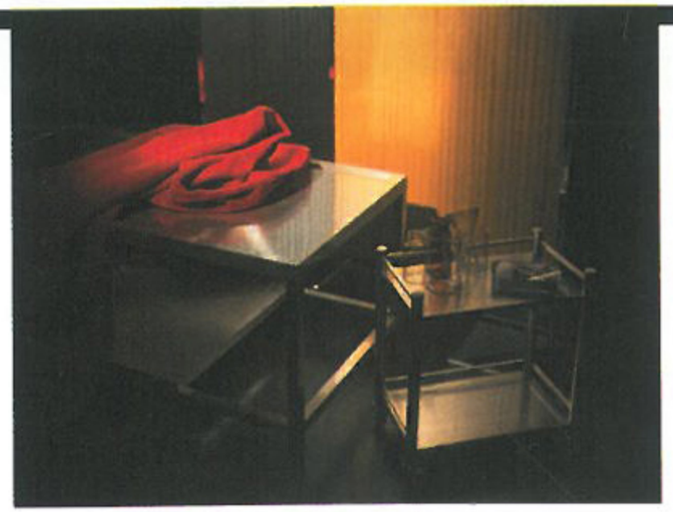
지휘자가 들려주는 古음악의 이해

명사들이 머리맡에 두는 책

Luxe in Africa

존재에 대한 천착, 작가 김아타

GALLERY editor 박지혜



현대인의 새벽 네 시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기간** 1월 28일~3월 23일
문의 02-2124-8800

'사진'과 '영상'으로 포괄되는 작품들을 모은 전시가 열린다. 전시의 부제가 '새벽 4시'인 이유는 이상의 단편소설에서 새벽 네 시라는 시간이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 '자신을 만나는 시간'을 상징하기 때문. 하지만 이 같은 주제의식에서 벗어나도 각각의 작품들은 충분히 흥미롭다. 뉴스에서 들은 충격적 사건을 재구성해 이미지화하는 이문호, 보도사진의 바깥을 낱낱이 보여주는 박종근, 참전 군인들이 유튜브에 올린 전시 동영상을 종이로 재구성해 촬영한 하태범 등 14인의 작업을 만날 수 있다.

오피, 서울을 관찰하다

장소 국제갤러리 **기간** 2월 13일~3월 23일
문의 02-735-8449

가장 단순한 방식으로 현대인의 초상을 그리는 데 성공한 작가 줄리안 오피.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가장 강력한 '픽토그램'의 창조자라 할 만한 줄리안 오피가 국내에서 두 번째 개인전을 갖는다. 그의 작품들이 실제 인물을 단순화한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 이번 전시에서는 특별히 그가 서울의 걷고 있는 군중을 관찰한 뒤 제작한 새로운 LED 회화와 다채로운 LED 패널의 신작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미지의 홍수 속에 사는 현대인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는 줄리안 오피의 마력(!)을 확인해볼 수 있는 자리.

하늘, 땅, 바다, 그리고 지평선

장소 아트선재 외 4개 갤러리
기간 2월 22일~3월 23일 **문의** 02-733-8945

하늘과 바다를 관조하는 김수자의 영상 작품을 보고 한없이 사색으로 빠져들었던 경험이 있다면, 이번 전시는 그 몇 배의 감동을 안겨줄 것이다. '지평선(Horizon)'을 인간의 지각에 대한 근본적인 탐구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작가들의 영상 작업이 한자리에 모이기 때문. 김수자를 비롯해, 이미 1970년대에 각도를 기울인 지평선 영상으로 인간들의 '이해의 방식'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던 얀 디베츠의 작품이 전시되며, 실파 굽타, 정연두, 왕펑 등 국제적으로 활약하는 20명 이상의 작가들이 참여한다.